

“첨단기술 구축해 재난 신속 대응”

LX공사 김정렬 사장, “반복적 대규모 재난 발생에 전통적 방식은 한계… 첨단기술 구축 확대 시급” 강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은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한 군산·익산 지역의 지사를 방문해 신속한 재해 보상을 위한 면적 산출 지원 예방대책 등을 점검했다. LX공사 안전관리 점검단은 지난 17일 사무실 일부가 잠긴 LX군산지사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LX익산지사와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가 침수된 익산 망성면·용안면 일대를 찾았다.



LX공사 김정렬 사장 등이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한 익산 망성면·용안면 지역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장 직원들의 안전대책 철저 이행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로 단절, 낙석, 생크롤 경사면·축대 붕괴 등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일일점검과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을 재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오부환 익산지사장은 집중 폭우는 군산·익산 등에 잠마 전선이 지체한 데다 대형댐 방류 및 서해바다 만조수위 등과 겹쳐 완연한지 등이 완전히 침수(관수·침수)되어 농작물과 농기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

었다고 보고했다. 한 주민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제안했다. 신사범 지적사업실장 등은 침수흔적도 작성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 폭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 등을 촬영, 신속

단기술로 용·복합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홍수 예방 및 대피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렬 사장은 “대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사법 제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째 노력해왔으나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심사 후 아직도 후속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사법이 신속히 통과되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대로 구현될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LX공사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 방식에 대한 전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디지털트윈 등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사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욱기 기자

“원자력안전교부세법 신설해야”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주민 안전 위해 캠페인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18일 원자력안전교부세법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 에 뜻을 더했다. 유희태 원주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을 다음 주자로 추천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마음으로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법 신설 릴레이 챌



릴레이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개공 최정호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18일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마약 근절 캠페인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최정호 사장은 “최근 마약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다”며 “마약은 한번 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이며, 국민 모두가 마약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사장은 하회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의 지목을 받아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이병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을 지명했다. /김욱기 기자

한전 군산지사, 주민 대상 봉사·사고 예방 현장점검 시행

한전 군산전력지사(지사장 김태용)는 지난 17일 군산시,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과 합동으로 송전선로 철거 예정지역 주민 대상 봉사활동과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한전과 군산시는 송전선로 경과지에 가장 근접한 지역 거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더위 극복을 위한 삼계탕을 제공하고 철거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과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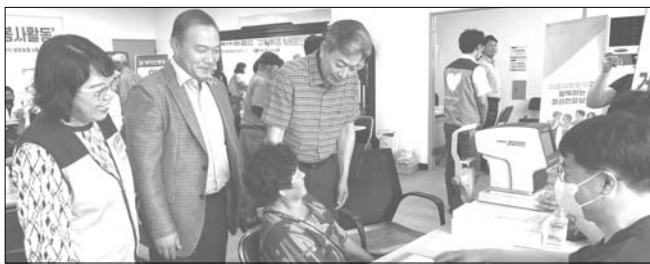
한전 군산전력지사는 지난 17일 군산시,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과 합동으로 송전선로 철거 예정지역 주민 대상 봉사활동과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공사 예정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도로 횡단 개소 교통안전 대책 마련하고 경사면 보호시설 설치 등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공사 현장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말 철거 예정인 해당 송전선로는 154kV 군산-서군산 송전선로서, 1978년 건설되어 45년 이상 군산시 내운동을 비롯한 중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 역할을 하였으며, 지난 6월 서군산 변전소 육내화 및 내운동 일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완료되어 철거공사를 추진 중이다. 김태용 군산전력지사는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송전선로 철거공사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기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산시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농협-성당농협, 농업인행복버스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8일 성당농협(조합장 허정천)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9차 농업인행복버스를 고령 농업인 150명 대상으로 운영했다. 농업인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대안병원 20여 명의 의료진과 군산 다비치 안경원 참여로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고령 농업인들의 관절 질환 및 소화가 계몽 상담을 통해 처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검안 후 맞춤형 돌보기 등을 무상

으로 지원했다. 성당농협 허정천 조합장은 “무더운 여름철 농사일에 지친 우리 농업인에게 행복버스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비타민과 같은 서비스였으며, 이번 의료 진료를 통해 건강한 영농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복버스 진행 이후에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 “풍요로운 농업,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해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는 성당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당농협은 현재 조합원 농업인안전



전북농협은 18일 성당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9차 농업인행복버스를 고령 농업인 150명 대상으로 운영했다.

보험 지원을 통해 조합원 안전 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노력과 매년 연말

종란 240만개 수입 통해 수급 안정·농가 소득 증대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국내 육계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수급 균형을 위해 닭 공급을 늘려 소비자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기로 결정했다. 18일 하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계열회사업자 10여 곳과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공급확대를 위한 수급조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육계공급 부족에 따른 닭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던 것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육계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의 닭고기 공급 요청에 적극 협조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량 확대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8월(1차), 12월(2차)에 이어 올해 4월(3차) 물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진행해왔고, 올해 7월(4차) 육계 공급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계 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종란 수입을 통해 닭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요소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사육농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종란 수입은 8월 21일 주차부터 미국(또는 EU)에서 주간 30만 개 종란 수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